

KIA 타이거즈, 합평서 호랑이해 도약 준비

2월 1일~3월 10일 켈린저스필드에 스프링캠프 차리고 훈련 코칭스태프·선수 54명 참가...김도영 등 신인 5명도 데뷔 준비

KIA 타이거즈가 합평을 2022시즌 도약의 무대로 삼는다.

KIA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합평 KIA 켈린저스필드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올 시즌 청사진을 그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국내에서 캠프가 치러지게 됐다. 대신 지난해와 달리 2주간의 합숙 훈련 일정을 더해 캠프의 집중도를 높이기도 했다.

합평 캠프에는 김종국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4명, 선수단 40명 등 54명이 참가한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1년 만에 복귀한 양현종 등

투수 20명, 김민식·한승택을 중심으로 한 포수 4명, 김선빈이 이끄는 내야수 9명, 고향팀에서 새 출발을 하는 나성범을 포함해 외야수 7명으로 합평 캠프단이 구성됐다.

투수 최지민·강병우·김찬민, 내야수 김도영·윤도현 등 5명의 '루키'도 합평 캠프에서 프로 데뷔를 준비하게 된다.

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며 체력·기술·전술 훈련이 전개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합숙 훈련'도 준비됐다.

훈련의 긴장감을 더하고, 선수단의 팀워크를 다

지기 위한 것으로 선수단은 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영광에서 합숙하며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베스트 멤버를 가리기 위한 연습경기도 8차례 진행된다.

광주·합평에서의 연습경기는 물론 원정 일정도 준비됐다. KIA는 대구를 찾아 삼성을 만나고, 기장에서 캠프를 치르는 KT와도 연습경기를 소화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퓨처스 선수단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정명원 감독의 지휘 아래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캠프가 운영된다.

코칭스태프 12명,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7명, 외야수 13명 등 53명이 광주 캠프에 참가해 시즌을 준비한다.

한편 KIA는 추위와 악천후 속에서도 캠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켈린저스필드와 챔피언스필드에 방한·방풍 시설을 완비했다.

◇KIA 합평 스프링캠프 명단

▲감독 : 김종국 ▲코치(13명) : 진갑용 서재용 박정철 최희섭 이범호 김민우 이현근 조재영 김상훈 배요한 정상욱 윤인득 유재민

▲투수(20명) : 양현종 임기영 이의리 윤준현 한승혁 이준영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 놀린 로니 홍상삼 이준형 유승철 박건우 이승재 장재혁 최지민 강병우 김찬민 ▲포수(4명) : 김민식 한승택 신범수 권혁경 ▲내야수(9명) : 김선빈 박찬호 류지혁 김태진 황대인 오정환 박민 김도영 윤도현 ▲외야수(7명) : 최형우 나성범 소크라테스 이우성 김호령 김석환 고종욱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벨교스포츠헤터에서 포즈를 취한 김중우(왼쪽부터), 안영규, 이순민. <광주FC 제공>

돌아온 안영규 광주FC 주장 맡는다

'돌아온 캡틴' 안영규가 2022시즌 광주 선수단을 이끈다.

광주FC가 20일 안영규를 주장으로 선임했다. 김종우와 이순민은 부주장으로 안영규를 돕는다.

광주 금호고 출신인 안영규는 통산 195경기에 나와 4골 4도움을 기록한 프로 11년 차 베테랑이다. 수원과 대전 등을 거쳐 2015년 광주로 팀을 옮겼고, 첫해부터 팀의 견고한 수비를 책임지면서 33경기를 소화했다. 이후 성남에서 활약했던 그는 3년 만에 광주로 복귀했다.

안영규는 뛰어난 리더십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췄으며, 활발한 소통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 주며 2018년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다.

부주장을 맡게 된 김중우는 지난 시즌 팀에 합류했으며, 부드러운 볼터치와 함께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이며 19경기에서 5골 2도움을 기록했다.

김중우는 그라운드에서 팀 공격의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은 물론 승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선수단 가교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광주 유니폼을 입은 이순민은 그라운드에서는 왕성한 활동량과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팀 내에서는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살림꾼'으로 통한다.

목욕히 팀에 헌신하면서 기회를 노린 이순민은 지난 시즌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매김하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

주장 안영규는 "2018시즌에 이어 올해도 주장을 맡게 됐다. 완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더 책임감이 든다"며 "광주는 승격을 두 번이나 한 팀이다. 선수단 모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하나로 똘똘 뭉쳐 다시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주장단에 선임된 세 선수 모두 출중한 실력과 팀에 대한 애착, 책임감, 희생정신이 강하다. 올 시즌 승격이라는 목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몰도바와 평가전 더 발전된 모습 보이겠다"

벤투호 오늘 오후 8시 경기 "선수들 팀에 녹아들게 준비"

새해 두 번째 평가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5-1 대승을 거둔 지난 아이슬란드와의 경기보다 나은 모습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원정 2연전을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벤투 감독은 20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시즌 초반임에도 우리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몰도바와의 경기에서 더 발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A매치 기간이 아닐 때 진행되는 이번 터키 전지훈련과 두 차례 평가전에서 벤투 감독은 유럽파 선수들의 빈 자리에 K리거를 불러들여 기량을 점검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7·8차전 원정을 대비하는 성격을 지닌다.

대표팀은 15일 아이슬란드와의 새해 첫 A매치

에서 5-1 대승을 거뒀고, 21일 오후 8시 몰도바와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친선경기에 나선다.

벤투 감독은 "아이슬란드전에선 결과도 중요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선수들의 태도도 좋았다. 새로운 선수들이 대표팀에 적응하도록 도운 것도 소독이었다"며 "다음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팀에 더 녹아들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최종예선 경기를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고, 남은 기간도 잘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몰도바전 선수 기용과 관련해선 "초반 선발 명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유럽파가 돌아오는 최종예선 명단 구성은 이어지고 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일단 보류된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상태 등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벤투 감독은 "전지훈련 기간 해온 것들을 전제적으로 평가하고, 피지컬의 문제가 있는 선수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한다.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을



새해 두 번째 평가전을 앞두고 축구 국가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인터뷰하고 있다. 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한국시간) 몰도바와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친선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것 같고, 단계별로 진행해 정확한 타이밍에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경기를 잘 치르고 토요일

(22일) 훈련 이후 결정하려고 한다. 전술적, 기술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스티븐 베르흐베인(가운데·25)이 팀의 3번째 골을 넣고 있다. 이날 손흥민(30)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베르흐베인은 1-2로 밀리던 상황에서 후반 추가시간 2분 사이에 멀티 골을 넣어 팀의 3-2 승리를 견인했다. /연합뉴스

'베르흐베인 극장골' 토트넘, 레스터에 3-2 승리 ... 손흥민 환호

손흥민(30)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스티븐 베르흐베인의 극적인 멀티골을 앞세워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동점골과 베르흐베인의 두 골을 엮어 3-2로 역전승했다.

경기 막바지까지 1-2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던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2분 사이에 두 골을 뽑아

내면서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다.

이로써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정규리그 9경기 무패(6승 3무)를 이어가며 리그 5위(승점 36·11승 3무 5패)로 도약했다.

다잡은 승리를 놓친 레스터 시티는 10위(승점 25·7승 4무 8패)에 머물렀다.

전반 9분 케인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찬 왼발슛은 문전에서 레스터 시티의 루크 토머스가 극적으로 걷어냈고, 9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케인의 헤딩 슛은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토트넘이 결정을 짓지 못하는 사이 전반 24분에는 레스터 시티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그러자 토트넘도 전반 38분 다리던 득점포를 가동하며 맞섰다. 해리 윙크스의 패스를 받아 쇄도한 케인이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찬 왼발 슛이 왼쪽 골대를 때린 뒤 골대 안으로 향했다.

추가 골은 레스터 시티가 만들어냈다. 후반 31분 하비 반스가 찰러준 패스를 받은 제임스 매디슨이 골망을 흔들면서 레스터 시티가 2-1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몰아치던 토트넘은 결국 후반 추가시간 결실을 봤다.

베르흐베인이 후반 50분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2분 뒤에는 케인의 패스를 받아 역전 결승골까지 책임지면서 토트넘에 승리를 안겼다.

한편, 손흥민은 베르흐베인이 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는 모습의 구단 SNS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승리할' 자국이 충분한 동료들'이라고 적었다.

또한 베르흐베인을 잡은 TV 중계화면을 캡처한 사진에는 '내 동생' 정도로 받아들이는 '마이 보이!!!!!!'라고 적는 등 애정이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연합뉴스

광주FC, 수비수 김승우 영입



광주FC가 U-23대표팀 출신 수비수 김승우(23·사진)를 영입해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는 지난 19일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수비수 김승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184cm·70kg의 김승우는 탄탄한 대인방어와 수비라인 조율, 안정적인 수비 실력을 갖춘 중앙수비수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정확한 패스를 하는 등 빌드업에 강점을 보이며, 공격전개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다.

김승우는 U-14 대표팀부터 U-23 대표팀까지 연명별 대표팀을 거친 엘리트 유망주로 2015 FIFA U-17 월드컵, 2017 FIFA U-20 월드컵, 2018 AFC U-23 챔피언십에 출전해 국제대회에서 29경기 2득점을 기록했다.

서울 보인고 시절인 2016년에는 전반기 전국고 등리그 왕중왕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 교축구대회(MVP)에서 주장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2019년 제주에 입단해 두 시즌 동안 9경기를 소화하면서 프로무대를 경험한 김승우는 지난 시즌에는 부산아이파크로 임대를 떠나 19경기를 소화하는 등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김승우는 "광주는 조직력이 끈끈한 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제주 시절 이정호 감독님께 소통과 조직력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들었다"며 "팀에 잘 녹아들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